

# 경기지회 밀원수 재배기술 이전 협약식 개최

경기도, 산림과학원, 경기양묘조합, 경기양봉협회  
양봉산업 발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앞장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도, 국립산림과학원, 양묘협회 경기도지부는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윤화현 경기지회장 봉장에서 밀원수 재배기술 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국립산림과학원의 밀원수 증식 및 재배기술을 이전 받아 헛개나무 등 밀원수림을 조성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자연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제농정국장, 축수산산림과장,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유전자원부장, 양봉협

회 윤화현 지회장, 시군 분회장, 양봉농가, 양묘협회 경기 지부장, 시군 축정 담당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밀원수 재배기술 이전 협약 체결 계획은

△밀원수 조림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밀원수를 활용한 경기도 양봉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 및 자연 생태계 보전이

며 국립산림과학원의 헛개나무 재배기술 이전 및 청정지역 식재 보급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밀원수 조성계획은 헛개나무, 옴나무, 모감주나무, 때죽나무 등을 민통선지역(파주), 국·공유림, 사유림, 산불발생지역에 조림하는 것이다.

협약 당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 경기도: 밀원수 재배기술 도입, 보급, 조림, 육림 총괄

- △ 국립산림과학원: 밀원수 재배기술 및 조림, 육림 지도
- △ 양묘협회 경기도지부: 밀원수 묘목육성 및 공급
- △ 양봉협회 경기도지회: 밀원수 식재지역 확보
  - 관리, 양봉산물 특화 등이다.



윤화현 경기 지회장은 “꿀벌농가의 염원인 전 국토 밀원화 사업에 한 발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국유림, 사유림에 밀원수를 식재하여 환경과 양봉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봉

## 헛개나무

- 헛개나무 꽃은 아카시아 보다 꿀 분비가 1.5배 이상 많으며 약리기능과 향이 좋아 선호도가 높음
  - 꿀 생산의 80% 아카시아 (5월생산)임, 헛개는 6~7월
  - 꿀 생산량: 2.8ℓ /10년생
- 속성수로 식재후 5년이면 개화되어 꿀 생산 가능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꿀 분비가 많은 개량종개발 (풍성 1호, 2호, 3호)

